



이윤정 Lee, Yun-Jung



성낙희 Sung, Nak-Hee



이정임 Yi, Jeong-lm



최수정 Choi, Soo-Jung



전준하
Jeon, June-Ha

Artist Forum Interview

Q1. 흔히 말하기를 '작품은 작가의 삶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는 어떤가요?

성낙희: 그건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매일 느껴지는 명확한 사항, 개인적인 정신, 생각의 흐름 그리고 자발적 의지는 시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구성됩니다. 단편화된 요소들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구도를 균형 잡기 위해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반영하는 즉흥적인 감정의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이동입니다.

이윤정: 그렇습니다. 제 작품들도 저의 삶의 일부이며 제 생활의 모습들에서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제작할 때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정임: "삶"의 정의를 작가의 정체성 혹은 작가 자신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루의 반 이상을 캔버스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의 삶과 작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왜곡되고 힘든 상황이 없을듯 합니다.

전준하: 언젠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작가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땐 작가와 작품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작가의 '삶'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성향 그리고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상과 성향, 예술에 대한 태도가 기자님이 말하시는 삶이라



(Bond) 120×130cm Flashe on canvas 2008



(Leap) 110×130cm Flashe on canvas 2008

Artist's note

The main creative idea of my recent work is to create a space that reveals an allusive vision of sensitivities through a decisively simple and expressionistic visual language. I use as formal elements such as dots, drips, scribbles, brushstrokes and organic shapes that take on a taxonomic meaning under a personal rubric.

These elements of language are the means of an expressive communication that reflect and react with one another and are intricately connected or alternately distant and disconnected. My composition of a visual language is accrued through a dynamic cumulative process, through unexpected twists and turns that evolve progressively into a harmonized and balanced spatial structure. It is a visual depiction that evokes the artist's psychological journey, a nomadic, autonomous vision that moves one optically, and gradually signals the mind, eye and psyche to wander through the flow of the depth of space.

